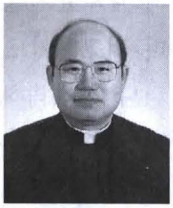


강론 ...

일생의 순교자들



김진소 신부
(호남교회사 연구소)

고통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게 병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아도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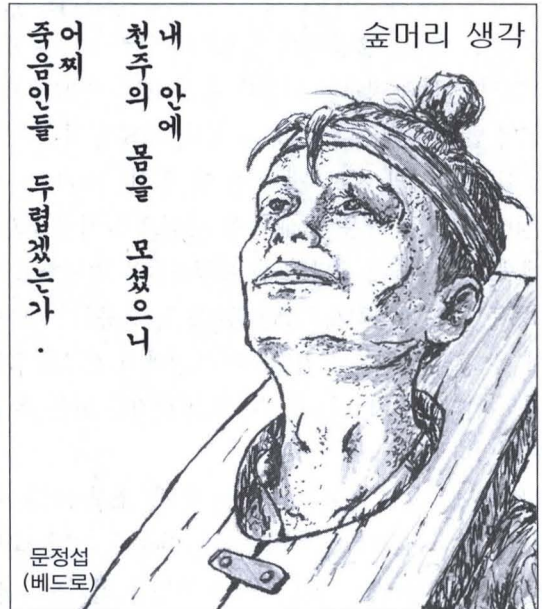
1839년 8월, 정하상 성인은 순교하기 전 천주교 신앙을 변호하는 글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당시 우의정인 이지연에게 바쳤습니다. 이 글에서 참혹한 순교의 현장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옥안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밖에서는 목이 잘려 죽음이 연달아 끊이지 아니하여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고 통곡하는 소리 하늘을 찌르고 아비는 자식을 부르고 형이 아우를 부르고 궁지에 몰려 몸을 돌이킬 데가 없이 되었으니, 이것이 정녕 무슨 곡절입니까?"

박해를 피해 깊은 산중에 살던 교우촌 생활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후에까지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거리라야 초근목피가 아니면 기껏해야 감자와 도토리가 전부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교우촌을 수도원에 비유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란과 쾌락에서 멀리 떨어져서...높은 산으로 마치 울안에 갇혀있듯이 둘러쌓여 기도와 발일로 일생을 보내는 이 교우들은 세속사람들보다 수도자들과 비슷합니다."

교우들은 육신보다 정신을, 물질보다 영혼을, 감정보다 이성(理性)을, 자기 욕심보다 이웃사랑을, 내 뜻보다 하느님 뜻을, 현세보다 하느님 나라에 목적

을 두고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가난과 험벗음과 굶주림과 박해의 고통을 벗어난 세월에 살면서도 이 정신을 구교우들은 오랫동안 지켜왔고, 이것이 한국천주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1801년 최해두가 유배지에서 쓴 자신을 참회하는 글인 '자책(自責 : 스스로 자신을 꾸짖음)'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 죽는 순교는 잠깐 동안의 순교지만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며 사는 은수자(隱修者)와 고수자(苦修者)는 일생의 순교'라고 했습니다. 박해시대의 정신으로 살던 교우들은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일생의 순교자인 셈입니다.



문정섭
(베드로)

순교자 유향검 아우구스티노(1756-1801)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호남지방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는 지체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양반가문에서 태어나지만, 덕망이 있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던 재산을 가진 세력가로서, 지금의 전주초입 근방의 초남이에서 살았다. 그는 권 일신의 인도로 천주교로 입



교하고 여러 박해를 거치면서 순교집안을 이루는데, 자신과 같은 날 순교한 동생 유 관검, 장남 유 증철(요한)과 차남 유 문석(요한), 부인 신 희, 조카 유 증성(마태오), 며느리 이 순이(루갈다) 등이 그의 집안 순교자들이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성교(聖敎)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가르치고 실천하였는데, 자신의 집안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훌륭하게 열성으로 교리를 전파하였다. 그의 열성과 항구한 마음은 우리 호남 지방의 천주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87년경 조선천주교회는 당시의 지도자들이던 권 일신(사베리오), 이승훈(베드로), 정 약용 형제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끼리 교계제도를 만들게 된다 그들은 성사들을 거행하고 설교 등을 하던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운용하는데, 이때에 유 향검은 신부로 임명되어 호남에서 전교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북경주교의 편지를 받은 후 곧 중단되었다.

그는 북경주교의 편지를 받고는 한때, 조상숭배는 하느님 흠숭에 어긋나고, 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은 국법(國法)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전파에 온 힘을 기울인다. 그는 1791년의 신해박해를 겪고 나서, 주 문모 신부

가 입국하는 것을 돕고 교세확장에 노력하는데, 주 문모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그를 보호하며 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해박해 이후 1801년까지 호남지방은 평온하였는데, 1801년의 신유박해의 칼끝은 호남지방에까지 겨누어지고

야 만다.

그는 전주감영으로 끌려가 혹독한 심문과 고문을 받는데, 전라감사 앞에서 곤장 30대를 맞고는 한순간 잠시 정신을 잃고 영겁결에 '성교(聖敎)는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황 사영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연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곤장을 맞은 후의 몽롱한 상태에서의 순간배교를 참회하고 참회하였다고 한다. 그는 서울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인으로서 판결을 받는다. 그는 호남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전주감영으로 다시 보내어지는데, 10월 24일에 전주 성내(城內)에서 참수되고 능지처참(陵遲處斬)형으로 순교하니, 마침내 그는 자신의 죄를 씻는 은총을 얻고 순교자의 반열에 든다. 다음은 그가 전주감영에 잡혀와 감사 앞에서 한 말이다.

“천주학은 이론적인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천애인(敬天愛人)하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가르칩니다. 동양 성현의 가르침인 상제(上帝)가 곧 천주(天主)인데, 우리인간세상에서 지킬 것은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천주계명(天主誡命)을 지키는 것이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지름길이 됩니다.”



가시에 대하여

'가시나무' 라는 노래가 있다. 오래 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여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한 편의 시 같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 곳을 찾아 지쳐 날아 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이 노래를 듣다보면 화두처럼 떠오르는 가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얼마나 많은 가시들을 품고 사는가. 온갖 질병, 재산, 가족, 지식 등... 다양한 종류의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다. 가시에 대한 집착으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찾는다. 또 자신의 가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쉽게 끊어 버린다.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가시는 주변사람들까지도 괴롭히면서 자신의 성격과 인생지도를 만들어 간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2 코린12,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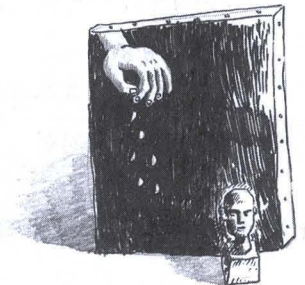
바로 사도는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발견해냈다. 우리도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정된 먼 길을 간다. 정녕 고통을 승화시키는 여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그 화살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힘겨운 여정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신의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관과 가시뿔을 선택하여 십자가라는 가시 위에 매달리신 슬픈 그리스도.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시 많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 안의 가시나무 숲에서도 축복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2코린 12,9a)

김혜선(아녜스)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영원한 상을 받았도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 1-2- 2c -3,4-5,6 (◎ 5)

- ◎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제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노라.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환성으로 가득하였노라.◎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도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노라. ◎
- 주님, 저희의 운명을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

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이다.◎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 오리라.◎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 환호송 1 베도 4,14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솔내 성당

본당의 날 행사 : 9월 17일(주일) 오전 10시
송북초등학교 강당

◆송천동 성당

애니어그램 강의 :
17일(주일) 오후 2시

◆쌍교동 성당

해외 성지순례단 모집 : 내년 5월 중순경 출발

◆지곡 성당

성령묵상회 : 10월 9일(월)~14일(토)

◆요촌 성당

지평선 축제 한마음 바자회 :
20일(수)~24일(주일) 벽골제 앞 버섯공장 마당

◆창인동 성당

익산남지구 은혜의 밤 : 20일(수) 오후 7시
재속형제회 주최 특별강론 : 리수현 신부

◆신태인 성당

150년 '농다리 교우촌 영성 센터'
신축을 위한 바자회

사자학교를 수료하고 전화상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평신도는 9명 정도 있으며 지금까지는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위주로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기존봉사자들을 위한 재교육차원의 수업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군산지구 필리핀 이주민 친선 농구 경기대회



군산 지구 필리핀 이주민들은 지난 9월 10일(주일) 군산 신흥 초등학교 강당에서 지곡 성당 남성 푸리아 소속 단원들과 친선 농구대회를 갖고 국경을 초월한 형제애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산 소룡동성당 필리핀 공동체와 지곡 성당 빈첸시오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구 사회 사목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필리핀 이주민 및 군산지구 신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명재(소룡동)신부, 김혁태(지곡)신부, 박동진(사회사목국) 신부가 함께 자리하여 이들을 격려했다.

신현숙, 김영수 기자

● 제 4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 개강

제4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가 지난 8월 31일(목) 2학기 수업에 들어갔다. 이번 학기는 감수성훈련과 성문제상담, 가족치료 및 영성상담, 위기상담, 전화상담 등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가정상담 봉

● 레지오마리아에 단원 순회교육

전주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가 주관한 단원 순회교육이 지난 9월 11일(월) 오후 7시 전동 성당(주임=김용태 신부)에서 단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문문구도매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사무용품·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
대표 원수관(야고보)·심경미(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 H·P 011-652-7721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미래 사목 대안 학술 발표회
'생태 영성과 민족의 복음화'
발표자 : 정홍규, 전현호 신부와
생태관련 전문가 7인
대상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일시 : 9월 23일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 가톨릭교리신학원 강당(해화동)
문의 : 031-997-093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필리핀)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전북 방사선과.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암검진)
CT / 초음파 / 유방 / 갑상선 검사
효자동 국민은행 3층(228-6060)
원장 : 임여섭(루치아), 송하숙(야고보)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이관재
☎ 228-6002~3

해외이민, 국제결혼수속,
중국교포초청, 영문·일본어 번역
문의 : (063)445-5226, 2276
FAX : (063) 443-3277
이태교(임마누엘) 김순자(프란체스카)
범흥이주공사 군산지사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샬트로 생바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
문의 : 032-875-3240
www.hschild.or.kr



숲정이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미사 및 한마당 잔치



숲정이 성당(주임=한봉섭 신부)은 지난 9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윤호관에서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많은 신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뜻깊은 기념미사와 교우들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성대한 한마당 잔치를 가졌다.

숲정이 성당은 정원지 베드로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축일인 9월 20일을 본당의 날로 정하여, 1976년 12월 15일 첫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3600

여명의 교우들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현재에 이른다. 이날 역대 주임 및 보좌신부님들 그리고 본당 출신 신부님들은 본당 월보인 '숲머리'(현재 233호 발행)에 축하글을 내주시며 기쁨을 같이 나누고, 격려와 함께 교우들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한봉섭 주임신부는 기념사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과 일치를 기초로 봉사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모범신자 표창과 본당설립 30년사 슬라이드 상영, 음식나눔잔치 후 친목게임을 통해서, 특히 끈 잇기 놀이에서 내 몸과 마음을 하느님과 하나로 잇고, 나와 내 이웃을 하느님께 이어가는 의미있는 게임 등을 하면서 전 신자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가 깊은 믿음 안에서 희생과 봉사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은 더욱 더 커짐을 느끼며 하루를 마쳤다. |이원엽 기자



성 마리아 꼬미시움(단장=이길용) 직속 5개 브레시디움과 12개 꾸리아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레지아 연중 사업 계획에 의한 순회 교육으로 1강의는 '단원의 자세' (강사=강상근 단장), 2강의는 '신앙이 무엇인가' (강사=김용태신부)란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 강의에서 김용태 신부는 "우리 신앙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가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이 나를 보호해주고 기쁘게 살게 한다"며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본래 모습으로 복원되어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경 기자

● 군산지구 레지오마리아에 신단원 교육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는 군산지구(오룡 가난한이의 모후 꾸리아=단장 김시연, 조촌 루르드의 성모 꾸리아=단장 조상배) '레지오 마리아에 신단원 교육'을 조촌동 성당(주임=박병준 신부)에서 실시했다. 200여 명이 참석하여 김광태 신부(레지아 지도신부)의 '레지오 단원의 자세'와 강상근 단장의 '레지오의 명칭, 기원, 목적, 정신'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광태 신부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잃는 아픔을 보았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 '부활과 성령 강령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레지오 단원들도 하느님을 위해, 성모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길 당부했다. 강상근 단장은 신단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강의하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순명해야 하며 기도와 활동을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길용운 기자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2시~5시
 광주 가톨릭센터
 문의 : 02-3673-2525, 010-6269-1711
 비고 : 신교사제를 희망하는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고등학생, 대학생 만 30세 이하 미혼남자

침묵 LD(Lectio Divina) 피정
 일시 : 9월 29일(20시)~10월 1일(18시) 30분
 장소 :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원
 문의처 : 대구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011-519-3431, 053-313-3431~3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 10월 21일(토) 오전 11시~10월 22일(일) 오후 4시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중강당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 부모자식, 교부간 내적, 외적, 영적치유를 원하는 분
 문의 : 011-490-5345 / 화비: 알면알면이동만금지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2시~24일(일)
 장소 : 서울 둔암동 본부
 문의 : 02-924-3048, 010-6818-3737
 비고 : 해외선교 사제지망자
 (www.columban.or.kr)



교구장 일정

- B.F성서모임
9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사목방문
9월 19일(화) 무주
- 인보성체수도회 미사
9월 20일(수) 오전 11시
- LA지구 합동순교자 현양대회 및 견진
9월 24일(주일)~26일(화)

미사 · 행사 · 모임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학교
9월 18일(월) 오후 2시 나운동
- 제4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
9월 21일(월) 오후 2시 윤호관
- 교구 기지단 모임
9월 23일(토) 오후 5시 센터
- 성심여고 개교 60주년 기념미사
9월 23일(토) 오전 10시
- 혼인강좌
9월 24일(주일) 센터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 모임
9월 24일(토) 오전 10시 성소국
- 가르멜 재속회
9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후원회 미사
9월 21일(목) 오전 10시 덕진
- 동전주 하나회 미사
9월 24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 환경미사와 환경강좌
9월 19일(화) 오전 10시 치명자산 성당
일정 : 오전 10시 EM실천사례 발표와 실습
오전 11시 환경을 위한 미사(최종수 신부)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9월 18일(월) 신동
- 새사제 연수
9월 21일(목) 오전 10시 센터
- 천호 피정
9월 21일(목) 오전 10시관
- 2006년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 피정
9월 23일(토)~24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천호피정의 집 / 강사 : 윤양호 신부
주제 : 기도하는 생활
준비물 : 필기 및 미사도구
문의 : 011-681-0610 양석현 신부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 성가경연대회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전주 중앙 성당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문의 : 교구사목국 285-0041~3
성가대연합회장 011-650-3477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 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PBC특별기획 드라마 **성모대건**
9월 17일(주일) 오후 3시(1,2,3부 연속 방송)
평화방송 TV, SKY- 평화 413
- **오현택 신부 주소변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진흥파크 2단지 203동 407호


• **천호 토마스 슈터 피정**
개인피정 : 방4개, 공동피정 : 30명 가능
가족피정 : 가족방 6개
위치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808-14
문의 : 063-262-6339, 016-233-9001

• **가정상담실 안내**
가정문제를(가족문제, 부모·자녀문제, 부부문제, 혼인강좌, 자연가족계획법등) 전화로 상담해 드리며 원하시면 개인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문의 : 281-0142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12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학교 신청 안내**
기간 : 9월 4일~10월 23일(매주 월) 오후 2시
9월 4일 오후 2시 성당에서 개강미사를 시작
대상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분
교육내용 :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정신건강복지, 지역복지, 심리이해(MBIT)
장소 : 군산나운동성당 교육관
교육비 : 3만원(교재제공)
입금은행 : 예금주-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은행 511-13-0312265
※ 신청이름과 송금인명이 같게 해주세요, 다를 경우는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문의 : 284-5290, FAX 284-4855

• **긴급재해구호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 2차교육 안내**
9월 17일(주일), 2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윤호관(전주 가톨릭신학원)
문의 : 284-5290(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

9월 좋은 영화-마더테레사
일 시 : 9월 20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20 분
관람비 : 천원



제랄딘 채플린 주연으로 1997년 9월 6일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 수녀를 기리며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

어린이집, 미술 학원 운영 및 취업률 100%학과
200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벽성대학 아동 미술(보육)학과
주부 및 민학도 전원 성인 장학금 혜택
맞춤식 교육으로 수업일 수 최소화
접수기간 : 9월 11일~29일
문의 : 염준영 교수(학과장)
011-291-5737, 063-540-2474

김제 지평선 축제
요촌 성당 바자회
기간 : 9월 20일(수)~24일(일)
장소 : 벽골제 앞(버섯공장 마당)
식사류, 안주류, 동동주
선물세트등

제4회 전주교구 테마 영상작품 공모전

공모주제 : 선교, 복음, 봉사
접수기간 : 2006. 9. 11~10. 20
(우편접수는 당일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10월말 예정
(교구일정으로 조정)
작품접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j catholic.or.kr)
문의 : 285-0041



용머리성당 본당설립 18주년 기념 기획초대전 및 축하잔치

1. 성서의 세계 특별전
 - 9월 16일~17일
 - 용머리 성당 전시관
 - 전시 주관 : 성서와 함께
 - 어린이·청소년 성서 교육
 - 본당 신자 성서 체험
2. 본당의 날 잔치
 - 특별전 기간동안(9월 16일~17일)
 - 용머리 성당 마당
 - 음식 바자, 가족을 위한 공연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동동

주임신부 : 625-0091 사무실 : 631-0091 주임신부 : 김 의 태
F A X : 633-0081 수녀원 : 635-0091 서목회장 : 김 기 장

- ◎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성령 시편 쓰기” 금주 : 18장~28장
- ◎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의 영혼을 위한 추석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 사무실
- ◎ 소공동체별 성가경연대회 지정곡 미사 후에 연습합니다!
- 1. 오늘 ① 이숙녀님 영명축하식 ② 성인복사회 ③ 안나희 ④ 아가페회
- 2. 금주 모임 ① 사도모임 22일(금) 미사 후 ② 애령회 모임 22일(금) 후8시
- 3.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막바지 마감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성전신축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 732,534단
- 4.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 김태현 루가 가정 / 임경미 미카엘라 가정
- 5. 성전신축헌금 : 김영호 200만, 최용남, 최은학(인월), 양재노(인월) 각 100만, 장점이(운봉), 신실아 각 30만, 이수영(운봉) 20만, 우윤순(인월) 10만
- 6. 차주 ① 성전신축2차 헌금 ② 전례분과모임 ③ 모니카회 ④ 추석굴버판매(3만원, 5만원)
- 지난주 봉헌금 : 876,850원 ■ 교무금 : 617,000원

무 주

주임신부 : 322-2308 사무실 : 324-0555 주임신부 : 이 상 용
유 지 원 : 324-3555 수녀원 : 322-2399 서목회장 : 김 원 태

- ◎ 성서읽기 : 9월 셋째주간-요기36장~42장
- ◎ 본당50주년 목주기도 봉헌: 금주14,570만 계292,279만
- ◎ “주교님 사목 방문을 환영 합니다” ※ 주교님 집전 미사 : 9월19일(화)-10시30분
- ◎ 초등부 주일학교 성지순례 : 9월23일(토)-천호성지
- ◎ 초,중등부 부모 모임 : 9월21일(목)8시
- ◎ 성당청소 : 9월23일(토)-한수리,상록반
- 1.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 후, 데레사화-9월19일(화) 11시
- 2. 금주전례 : 해설-박영주, 독서-김연홍 부부
봉헌-정석봉 부부, 기도-양효일 부부
- 3. 차주전례 : 해설-김영애, 독서-황두연, 이정은
봉헌-이용석 부부, 기도-김원태, 이명숙
- 지난주 봉헌금 : 522,000원 ■ 교무금 : 1,136,000원

순 창

주임신부 : 653-1004 사무실 : 652-1004 주임신부 : 송 용 석
F A X : 653-0414 수녀원 : 653-3135 서목회장 : 정 윤 열
홈페이지 :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 1. 금주모임 : 데레사화-미사 후, 성모회-20(수)10시
- 2. 차주모임 : 꾸리아-미사 후,
- 3. 금주전례 : 해설-김성애, 독서-오경순 이준택
- 4. 차주전례 : 해설-문정자, 독서-임은선 김호진
- 5. 청 소 : 금주-착한의견의 어머니Pr., 차주-가정의 모후Pr.
- 6. 차량봉사 : 금주-이지주 임래원, 차주-김진한 김희중
- 7. 성지순례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준원, 강점숙, 임래원, 김순남, 장미선, 김규수, 요셉회)
- 지난주 봉헌금 : 340,650원 ■ 교무금 : 75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 633-1004 사무실 : 633-4004 주임신부 : 박 성 팔
유 지 원 : 633-4006 수녀원 : 626-1004 서목회장 : 양 장 석
홈페이지 : http://www.ssangkyo.org

-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루카 9,26).
- ◎ 추 세례 : 9월24일(일) 교중미사중 - 한 가족이 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 10월 6일(금), 먼저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예비자 특별교리 : 9월 26일(화)부터, 저녁 8시10분 - 많은 인도바랍니다.
- 1. 모임안내 ① M.E - 18일(월) 후 8시
② 예루살렘회 - 20일(수) 전 9시30분
- 2. 해외 성지순례단 모집 : 일정 - 2007년 5월 중순경, 목적지 -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인연 - 25명 이내(선착순 마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3.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 현재 275,830단
- 4.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인액 : 155,984,000원, 납입액 : 90,908,000원
- 5. 감사헌금 : 영구환 1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2,008,150원 ■ 교무금 : 1,801,000원

진 안

주임신부 : 433-0750 사무실 : 433-2541 주임신부 : 정 석 수
F A X : 433-7599 수녀원 : 433-1531 서목회장 : 김 길 용
안들공소 : 433-3177 유 지 원 : 433-2293

- ◎ 9월 17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입니다.
- ◎ 9월 24일(일) 만남의 날입니다. 봉사는 부귀지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 1. 20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 2. 19일~28일까지 데레사 수녀님 연중피정 :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 수

주임신부 : 644-9386 사무실 : 642-6319 주임신부 : 서 광 석
F A X : 642-6319 서목회장 : 변 용 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 174,294만
-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포함시다.
- 3. 성서를 통독합니다.
- 4. 본당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금주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김진태, 박춘향
- 6. 차량봉사 : 김옥기 형제남매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7. 차주전례 : 해설 - 문정아, 독서 - 황일주, 신광일
- 8. 차량봉사 : 이기를 형제남매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 실

주임신부 : 643-3661 사무실 : 642-2164 주임신부 : 박 중 출
F A X : 642-2164 수녀원 : 643-3660 서목회장 : 신 태 근

- 1. 공소미사 : 삼길 - 오늘 후, 6시, 신전 - 차주 후, 7시
- 2.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 손운상(요셉) 50만원, 성석동(이나시오) - 20만원
- 3. 감사헌금 : 김미순(안젤라) 5만원, 소정모(라우렌시오) 10만원
- 4. 모임 : 모니카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유아실
구역장회의 - 차주 교중미사 후, 유아실
- 5. 구역모임 ① 관촌1,2,3 - 20일(수) 후, 8시
② 관촌4,5 - 21일(금) 후, 8시
- 6. 차주전례 : 해설 - 윤영자, 독서 - 노재진 부부, 봉헌 - 전막동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776,500원 ■ 교무금 : 740,000원

장 계

주임신부 : 353-0610 사무실 : 351-0111 주임신부 : 임 기 봉
F A X : 351-0605 수녀원 : 353-0611 서목회장 : 이상 화

- ◎ 오늘은 계복신자 초대주일
- 1. 미사시간변경 : 평일 특전 오후7시30분 수요일오전 10시
- 2. 성모회 : 오늘(17일) 주일미사 후
- 3. 주간 축일 :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동료순교자 대축일
- 4. 반모임 : 22일(금) 연동, 내동, 조신, 쌍암, 삼고 공소 구역
- 5. 다음주일 전례봉사 : 염정선, 김계일, 안옥선, 심현천, 양승현
- 6. 김정자, 헤라나 자매 배추밭에 쓰시라고 30,000원
- 7. 감사헌금 : 김동순 3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635,700원 ■ 교무금 : 377,000원

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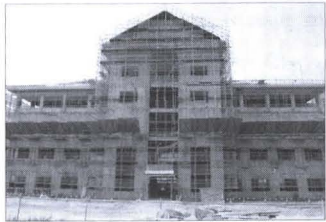
주임신부 : 351-8888 사무실 : 351-2264 주임신부 : 정 천 표
F A X : 351-5226 수녀원 : 351-1228 서목회장 : 박 동 표

- ◎ 2007년도 성당달력 광고신청 접수 : 사무실
- ◎ 주일학교 개학 : 토요일 5시 미사(4시까지 도착)
※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 유아세례신청 : 수녀님께(9.24일 세례식 예정)
- 1. 금주참석공소 : 수분, 차주 - 상동 2, 금주공소미사 : 상동, 차주 - 번암
- 2. 금주전례 : 박덕순(루시아), 차주 - 김원순(루실라)
- 3. 금주독서 : 박동표(요셉), 이옥주(루갈다)
- 4. 차주독서 : 이정준(베네틱토), 이형순(사비나)
- 5. 금주봉헌 : 장재주(요한), 최임주(켄마)
- 6. 차주봉헌 : 산공식(다니엘), 김미숙(마리아)
- 7. 차량봉사자 : 금주 - 이지수(대건안드레아), 차주 - 박충기(스테파노)
- 지난주 봉헌금 : 361,400원 ■ 교무금 : 285,000원

- 3. 23일 중, 고등부 성지순례
- 4. 금주봉헌 : 허현욱 요셉 부부
- 5. 차주봉헌 : 김광수 바오로 부부
- 6. 성당청소 : 천사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878,000원 ■ 교무금 : 1,224,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9월 9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나바위, 고산, 인후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신평, 나운 2동, 금암동, 중앙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월명동, 용안, 복자, 대야,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소양, 숲정이, 서신동, 영등동, 영등소라, 신동, 솔내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992,472	46.62%
사제단	1,000,000	1,018,469	101.85%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45,169	36.34%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8,777,918	48.77%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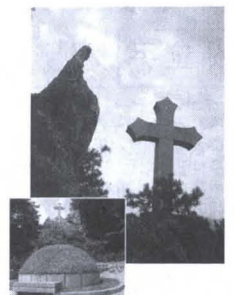
산상 성지의 축복을!

한국 천주교회의 생성을 이야기 할 때는 으레 순교 신심을 강조한다. '순교자의 피는 우리 신앙의 씨앗이요 거름'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가끔 세파에 시달려 신앙이 약해지고 무뎠을때, 새롭게 자신을 다잡고 추스리고 싶을때면 성지를 찾아 순례를 하며 재충전의 피정과 사색의 순간을 갖곤 한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 했던가. 해외 성지여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그것도 지척에 세계적인 성지로 각광을 받는 성산을 두고도 전주 신자들은 순례 할 줄도, 그 은혜로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젠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최적의 영육 웰빙 코스' 라 찬탄을 하는데도 정작 교우들은 탄전을 피우는 듯 하여 산상에 순교자들을 모신 선조들의 고귀한 뜻이 무색할 따름이다.

성지는 어느면에선 '작은 축복의 샘', 지상천국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느님 은총이 햇살처럼 쏟아지는 산, 성인들 열이 서리고 형제자매 모여 사랑과 기쁨 가득 나누는 거룩한 곳, 일순이나마 '에덴의 축복' 속에 잠길 수 있을 터인데...

그래, 시름에 겨울 때 살며시 나서 성지를 오르며 잠시 성스러움에 젖어 보자.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리라.



김봉희 신부(치명자산 산지기)